

교회 소식

1. 환영합니다

- 언약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
-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나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우리교회는 어린 아가들부터 온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. 그래서 조금 소란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가급적 앞좌석에 앉아주시면, 좀 더 정숙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.

2. 1월, <매일 15분씩 기도>하는 달

1월은 <매일 15분씩 기도>하는 달입니다.

실천가능한 장소,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합니다.

3. 기타 안내

- ① 1월23일(화)-26일(금)까지 <창세기 반나절 성경공부>가 있습니다.
- ② 지난 수요일예배 때부터, <출애굽기> 강해를 시작했습니다.
- ③ 연말정산서류를 오늘부터 일괄 발급할 예정입니다.
- ④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.
특히 함유이 어린이와 내일(15일) 입원 예정인 김재영 아가를 위해 기도합니다.

대한예수교
장로회

언약교회

COVENANT COMMUNITY CHURCH

섬기는데 목사-조호진 / 전도사-김숙영, 이윤진, 이현호
서울 관악구 인현동 181-6 현대아파트상가 (3층)

☎ 02-875-7760 <http://www.unyak.org> <제20-02호 / 2018년 1월14일>

말씀이 깊고 풍성한 교회

은 성도가 믿음과 섬김으로 "제자삼는 제자"가 되는 교회



(성경)

온라인
헌금

국민은행 206001-04-148682 (예금주/언약교회)
신한은행 100-032-008667(예금주/언약교회)
우리은행 1005-901-708982 (예금주/언약교회)

봉사
안내

	이번 주(1/14)	다음 주(1/21)
설거지	송하람, 김동현, 이동균	강수빈, 조가람, 이병로
오후통독	김은재(누가복음 14-15장)	윤혜진(누가복음 16-17장)

주일	유·초등부	오후 1시30분
	중·고등부	오전9시30분
	주일예배	오전11시 // 오후1시30분
주중	<아침예배>	오전9시30분(월-금)
	수요일예배	저녁7시30분

주일 예배 순서

인도 : 조호진 목사

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 일어서서
 사도신경 일어서서
 회개와 감사 기도 일어서서
 찬양 찬송가 199장 "나의 사랑하는 책" 다함께
 대표기도 이광현 형제
 성경봉독 에스라 7장 1-10절 말씀 정순규 집사
 말씀 『연구하여, 준행하며, 가르치기로』 조호진 목사
 결단의 기도 다함께
 성도의 교제 다함께
 광고 인도자
 찬양 "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" 일어서서
 축도 조호진 목사

- ▣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.
- ▣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 및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.

예배 위원		다음 주(1/21)	2주 후(1/28)
	대표 기도		이 준 형제
성경 봉독		송하람 형제	조가람 형제

성경 본문 (개역개정판-에스라 7장 1-10절 말씀)

- 01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
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
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
- 02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 손이요 아히둡의 육대 손이요
- 03 아마랴의 칠대 손이요 아사랴의 팔대 손이요 므라뫼트의 구대 손이요
- 04 스라히야의 십대 손이요 웃시엘의 십일대 손이요
 북기의 십이대 손이요
- 05 아비수아의 십삼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십사대 손이요
 엘르아살의 십오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십육대 손이라
- 06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
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
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
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
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
- 07 아닥사스다 왕 제칠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
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
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
- 08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칠년 다섯째 달이라
- 09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
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
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
- 10 에스라가 여호와와의 율법을 연구하여
 준행하며
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